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시범 가동...다음달 생산 재개 목표

화재 ‘올스톱’ 4개월만에...1·2 공장 성형·선별·출하 공정 점검
노사 전원 고용 보장 합의...합평 공장 2027년 말까지 신설 목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대형 화재에 따른 생산 중단 이후 4개월 만에 시범 가동에 돌입했다. 사실상 ‘생산 재개’를 알리는 첫 단계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노사특별합의안에서 약속한 ‘10월 분가동’을 위해 이날부터 3일간 시험 가동과 공정 점검 등을 시작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16일 기업 공시를 통해 기존의 ‘생산 중단’ 문구를 ‘생산 재개’로 변경하며 재가동 준비 소식을 알렸다.

금호타이어는 우선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1공장과 2공장 일부 공정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 1공장에서는 성형·가류 공정을, 2공장에서는 검사·선별·출하 공정을 점검 중이다. 다만 타이어 제조의 첫 과정인 2공장 내 정련 공정이 불에 전소된 탓에 고무와 반제품은 곡성공장에서 공급받기로 했다.

이번 시범 가동은 4개월 동안 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 주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불량률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등 정상 가동 직전 ‘마지막 준비’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시험 가동 후 다음 달부터 하루 1000본 생산을 시작으로 단계적 보안을 거쳐 하루 1만본 생산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이 재개되면 그동안 사실상 ‘강제 휴식’에 들어있던 노동자 1800여명의 불안감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실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1공장만으로 직원 전원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 고용 안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생산량과 가동 범위에 맞는 효율적 인력 배치를 내세우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1공장 투입 인원과 관련해 사측과 의견 차이가 있어 계속 논의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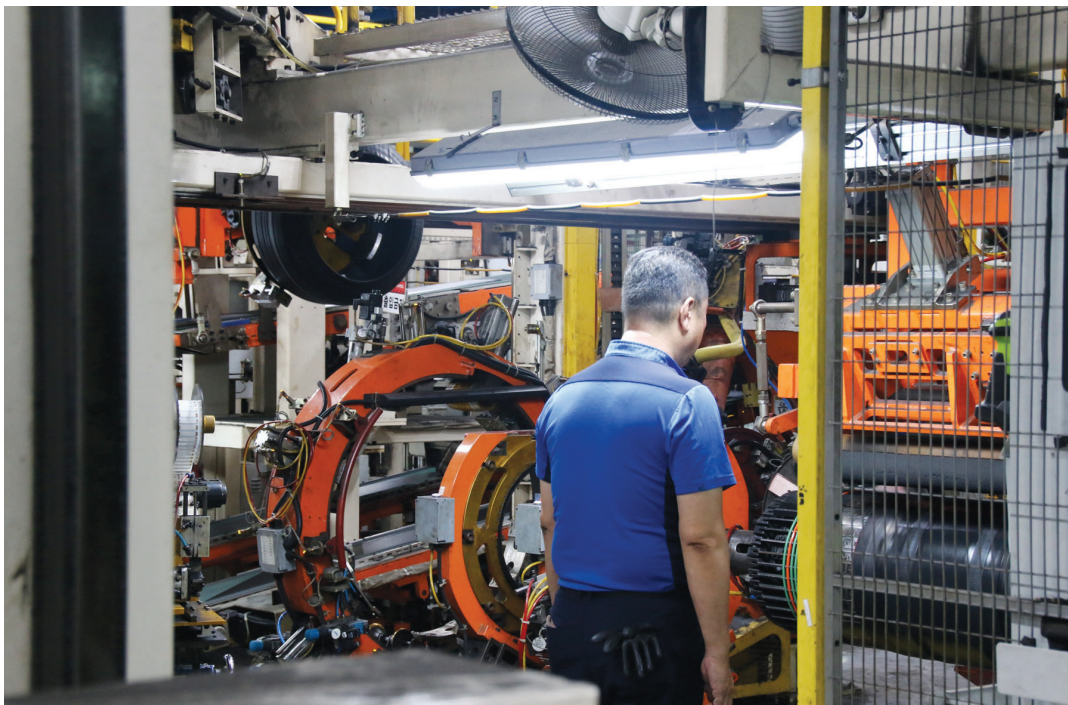
는 단계”라면서 “일단 노사 모두 10월부터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인원 문제가 정리되면 정상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올해 내 광주 1공장 설비·보완으로 하루 6000본 생산, 2028년 합평빛그린산단 신공장 1단계로 연 530만본 생산 목표 가동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또 최종 부지 매각 후 1공장을 합평 신공장으로 이전해 2단계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구성원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사 모두 현재 구성원의 고용 보장을 약속했지만 합평 신공장이 완성되기 전까지 광주 1공장만으로 수년간 버텨야 하는 만큼 인력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을 넘어 지역 고용과 협력업체 생존과 직결된 곳”이라며 “신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노사가 원만하게 협력해야 지역 경제 전반의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동자가 17일 광주공장에서 성형기 시범 가동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10월 본 가동 전 이날부터 사흘간 모든 공정 시범 가동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제공>

HS효성첨단소재 ‘CCE 전시회’서 차세대 탄소섬유 선보여

수소 고강도 섬유 등 제품 공개

국내 최초 탄소섬유 독자 기술을 보유한 HS효성첨단소재가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회에서 현지 시장을 겨냥한 탄소섬유 특화 제품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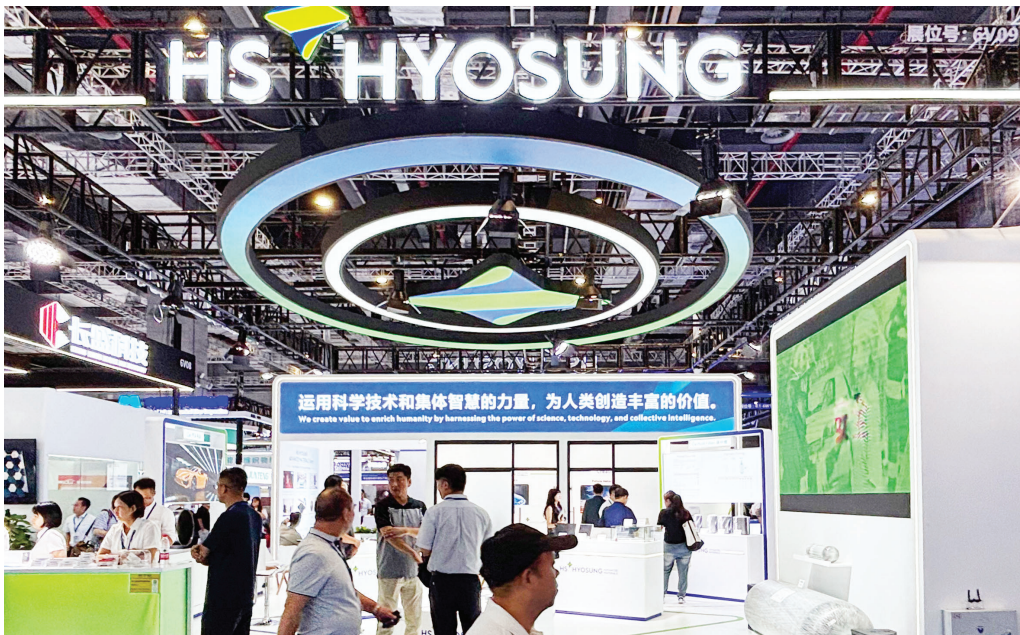
17일 HS효성첨단소재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CCE (China Composites Expo) 2025’에 참가하고 있다.

매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CCE 전시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소재 전시회로 700개의 기업이 항공우주, 자동차, 스포츠,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소재를 전시한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13년부터 매년 CCE 전시회에 참여하며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전시에서 탄소섬유 기반 신제품과 산업별 해법을 선보인다. 특히 HS효성첨단소재가 소개하는 ‘3K 직물’은 기존 제품보다 인장강도와 탄성률을 강화해 고사양 산업 제품부터 항공우주 분야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

주요 전시 품목은 수소·고압용기용 고강도 섬유, 하키스틱·피클볼 라켓·헬멧 등 고성능 스포츠용품, 자동차 경량화 부품(휠·브레이크 디스크·보닛 등), 경량성·고강성을 동시에 구현한 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CCE 2025’에 참가한 HS효성첨단소재 부스 전경. <HS효성첨단소재 제공>

론용 소재, 전선심재·교량로프 등 산업·건축용 복합재다.

HS효성첨단소재는 다양한 탄소섬유 제품을 통해 차세대 탄소섬유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11년 철보다

4배 가볍고 10배 강한 고강도 탄소섬유 ‘탄섬’을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2022년에는 철보다 14배 이상 강하고 항공·우주 분야로 활용 가능한 ‘H3065 (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하는 등 탄소섬유의 절대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100일 챌린지 적금’ 신규 출시

젊은층 꾸준히 입금하면 우대금리

광주은행이 젊은층을 겨냥한 ‘100일챌린지적금’을 신규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챌린지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와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것으로, 소액이라도 100일동안 꾸준히 입금하는 적금 방식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자동이체가 아닌 매일 ‘도전 알림’을 받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스스로 참여하는 재미와 성취감을 준다는 특징을 지녔다.

또 입금 시 작성한 메모는 만기 시점에 ‘추억이 담긴 내역서’로 발송돼 간직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만 17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한 자유적립식 상품이며, 1일

납입한도는 1000원부터 1만원까지다. 가입자가 100일동안 매일 꾸준히 입금할 경우, 기본금리 연 1.00%에 우대금리 최대 연 5.00%를 더해 최대 연 6.0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 가입은 광주은행 Wa뱅크앱 또는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 및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문수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짧은 기간이지만 꾸준한 저축 습관을 통해 금리 혜택과 더불어 소중한 추억까지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대재해’ 기업, 대출 문턱 높아지고 보험료 올라...공시도 의무

연기금 등 투자 받기도 어려워져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보험사에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 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

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인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를 최대 15% 할증한다.

반면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했으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톱어트시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북구청-대우위니아 협력업체 간담회 지난 16일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대우위니아그룹 소속 위니아,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대우플러스, 위니아에이드 등 5개 협력 업체 대표들이 계열사 화생신청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GICON, ‘문화산업 진흥지구 기업 유치 설명회’

각종 지원제도·인센티브 소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의 지원제도와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안내, 기업 이전 사례 발표, 1대1 맞춤형 상담 부스 운영, 참가사 네트워킹 등이 있다.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CGI센터, 실감콘텐츠큐브(GCC), 콘텐츠허브 등 광주시 첨단 영상 제작 인프라와 창업보육·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방안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스튜디오더블유바바와 ㈜캡프라이어애니웍스가 직접 광주에서의 기업 성장 사례도 발표한다. 스튜디오더블유바바는 인기IP인 ‘힙닥’을 비롯한 ‘헬로 카봇’, ‘시노스톤’ 등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캡프라이어애니웍스는 ‘레인보우버블즈’, ‘빅풋패밀리’ 등 글로벌

별 IP를 기반으로 해외 동시 방영 및 공동 제작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광주가 보유한 문화산업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기업들에게 직접 알리는 자리”라며 “K-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는 문화콘텐츠·관광 분야 기업의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지구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 광주CGI센터 권역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413.40 (-36.22)
↓ 코스닥	845.53 (-6.30)
↑ 금리 (국고채 3년)	2.418 (+0.001)
↓ 환율 (US D) 〈오후 5시 44분 기준〉	1378.80 (-0.10)

중기부, 창업루키 1천명 발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투자

중기부는 17일 경기 성남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의 도전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과 ‘창업오디션’을 통해 창업 루키 1000여명을 발굴해 전문 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과 초기 투자부터 밀착 보육까지 지원하는 ‘벤처 스튜디오’ 방식으로 기업을 육성한다. 차세대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육성을 목표로 13조 5000억원 규모의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한미 관세협상 설명회

수출 기업 대상 종합지원대책 공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분부는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관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 정책 동향과 유관기관의 지원 제도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미국 관세정책 이후 최근 통상 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국가별 상호 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분부는 미국의 철강·알

루미늄·파생상품 관세로 영업이익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 대상 기존 융자사업 금리 대비 1.0%p 추가 인하(최저 1.5% 금리)된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 회원사 특별 저리 대출’을 소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금융 제도, 기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 공급망 안정화 자금 등 수출입은행의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달부터 냉장고, 자동차 부품 등 광주의 상위 수출 품목 중 일부가 미국 관세 조치에 추가돼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와 같이 유관기관과 함께 광주·전남 기업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